

손으로 보는 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선집중

중도시각장애인들의 영어능력검정시험에 대한 편의지원 확대되어야
서해웅(구로구청 주무관)

테마기획

매년 10월 15일은 '흰지팡이 날'입니다.

인 터 뷰

장애인 복지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박사

포 커 스

시각장애 학생들이 만든 코끼리, 광화문에서 만나요!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임시공휴일

04 | 시선집중

- 중도시각장애인들의 영어능력검정시험에 대한 편의지원 확대되어야
서해웅(구로구청 주무관)

06 | 테마기획

- 매년 10월 15일은 '흰지팡이 날'입니다.

08 | 인터뷰

- 장애인 복지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박사

10 | 포커스

- 시각장애 학생들이 만든 코끼리, 광화문에서 만나요!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음성정보 서비스와 현재 생활
박민혁(시각장애 1급_서울특별시 마포구)

13 | 월드 리포트

- 브라질 시각장애인 청년, 전문 서퍼로 활동

14 | 뉴스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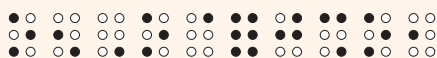
- 손가락 뜨개 가방으로 겨울을 준비해요!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수락산 자락길 건강걷기대회 실시
- 한시련, 장애인 정보이용 차별철폐 성명 발표 기자회견 가져
- 한시련, 첫 전국심화재활교육 실무자 과정 실시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

연휴 사이에 끼어 있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임시공휴일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임시공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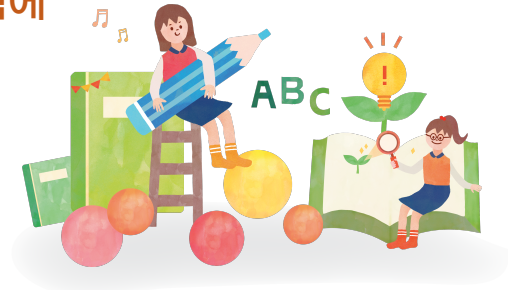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 일람 표															
자 음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 ●●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된소리 ○○ ○●
받 침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 ●●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모 음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ㅙ ●○ ●●	ㅚ ○○ ●○	ㅜ ○○ ●○	ㅠ ●● ○○	ㅞ ○○ ●○	ㅟ ○○ ●●	ㅠ ○○ ●○	ㅡ ○○ ●○	ㅢ ●● ○○	ㅣ ●● ○○	ㅤ ○○ ●○	ㅥ ○○ ●○	ㅦ ○○ ●○	ㅧ ○○ ●○	ㅨ ○○ ●○
약 자	가 ●● ○○	나 ●● ○○	다 ○● ○○	마 ●○ ○○	바 ○○ ○○	사 ●○ ○○	자 ○○ ○○	카 ●● ○○	타 ●○ ○○	파 ●● ○○	하 ○○ ○○	억 ●○ ○○	언 ○○ ○○	얼 ○○ ○○	연 ○○ ○○
	열 ○○ ○○	영 ○○ ○○	옥 ○○ ●●	온 ○○ ●●	웅 ●● ○○	운 ●● ○○	울 ●● ○○	은 ○○ ●●	을 ○○ ●●	인 ○○ ○○	것 ○○ ○○	쌔빤침 ○○ ○○			
약 어	그래서 ○○ ○○		그러나 ○○ ○○		그러면 ○○ ○○		그러므로 ○○ ○○		그런데 ○○ ○○		그리고 ○○ ○○		그리하여 ○○ ○○		
숫 자	수표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0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줄임표(…) ○○ ○○										
영 어	a ○○ ○○	b ○○ ○○	c ○○ ○○	d ○○ ○○	e ○○ ○○	f ○○ ○○	g ○○ ○○	h ○○ ○○	i ○○ ○○	j ○○ ○○	k ○○ ○○	l ○○ ○○	m ○○ ○○	n ○○ ○○	o ○○ ○○
	p ○○ ○○	q ○○ ○○	r ○○ ○○	s ○○ ○○	t ○○ ○○	u ○○ ○○	v ○○ ○○	w ○○ ○○	x ○○ ○○	y ○○ ○○	z ○○ ○○	영어시작 ○○ ○○		끝 ○○ ○○	대문자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ㅍ, ㅞ, ㅟ]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ㅇ'으로 바뀐다.

중도시각장애인들의 영어능력검정시험에 대한 편의지원 확대되어야

서해웅(구로구청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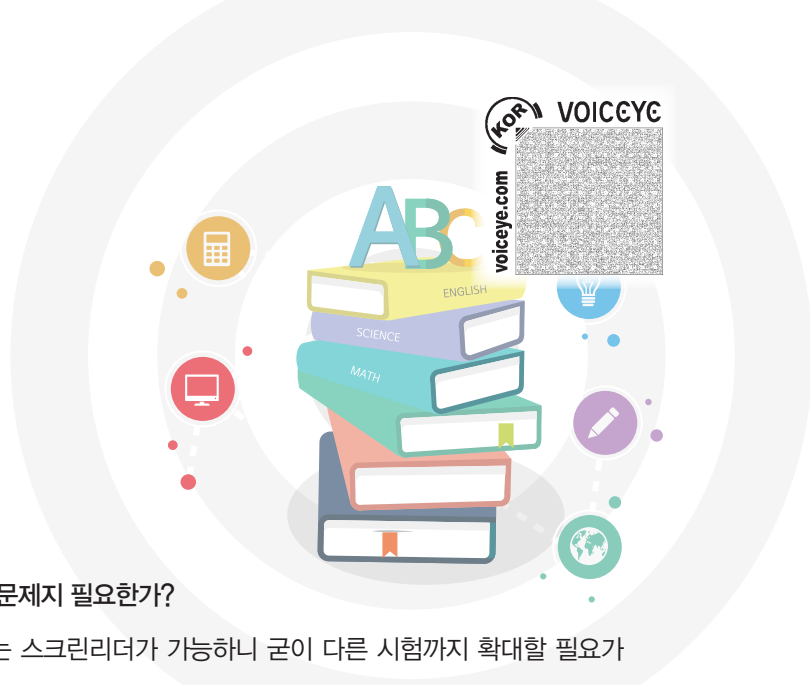
* 본문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밝혀두고자 한다. 먼저 이 글에 쓰인 '중도시각장애인'은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확대문제지는 물론이고 점자를 읽을 수 없거나 또는 읽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일정한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소화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가리킨다. 또 글에 언급된 각종 영어능력시험에 대해서는 TOEFL을 제외하고 모두 주관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내용이며 TOEFL은 ET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다.

올해부터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공고에 제시되어 있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은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총 5종이다. 앞에 제시한 모든 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은 확대문제지, 점자문제지 그리고 시험시간 연장이다. 이 중 스크린리더를 활용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험은 TOEFL 과 TEPS 단 두 시험에 불과하다.

이번 대체시험제도확대로 인해 별도의 영어시험을 치러야 하는 중도시각장애인들은 비시각장애인 수험생이나 다른 시각장애인 수험생에 비해 공무원시험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비단 공무원시험 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도 입사에 있어 그 성취도를 평가하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취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 점자 익혀서 시험 보면 안 되나?

중도시각장애인들도 점자를 배워서 점자문제지로 시험을 보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중도시각장애인들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에 비해 나이가 든 후에 점자를 학습하기 때문에 손끝으로 점자 자체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점자를 익힌다 할지라도 능숙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한글도 아니고 영어점자를 익혀 시험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 모든 영어 시험에 반드시 스크린리더 문제지 필요한가?

또 다른 반론으로 TOEFL이나 TEPS는 스크린리더가 가능하니 굳이 다른 시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편의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비장애인과 비교해 보자. 비장애인들은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시험들 중 자신에게 맞는 시험에 응시하여 몇 번이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각 영어시험에 따라 유형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좀 더 적합한 영어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선택권을 애초에 박탈당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편의지원을 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는 각 시험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장애인들이 치를 수 있는 기회에 비해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백번 양보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횟수가 적은 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점자문제지나 확대문제지 어느 것으로도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중도시각장애인 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참으로 막막하다.

– 결 론

시각장애인들 중 얼마나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10% 내외로 알려져 있다. 또 약시자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점자나 확대문제지 어느 것으로도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중도시각장애인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점자문제지, 확대문제지, 스크린리더 가 읽을 수 있는 문제지 그리고 시험시간 연장이 모두 편의지원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시험에 대한 선택권뿐만 아니라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매년 10월 15일은 ‘흰지팡이 날’입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 : World Blind Union)에서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15일, 흰지팡이 날(the White Cane Day)인데요. 흰지팡이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흰지팡이는 리처드 후버(Richard Hoover) 박사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흰지팡이 날’은 이와 같은 흰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해 이름 붙여졌는데요. ‘흰지팡이 날’ 선포문에는 ‘흰지팡이는 동정,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다.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과 정부는 이날을 기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사와 일반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계몽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언제부터 흰지팡이를 사용했을까요?

1900년대는 세계대전으로 시각장애인이 증가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벨리포지 군병원(Valley Forge General Hospital)의 안과 의사였던 리처드 후버 박사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흰 색을 칠한 지팡이를 고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흰지팡이는 1931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클럽(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국제적사회봉사활동 단체) 대회에서 표준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10월 15일을 ‘흰지팡이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 각국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홀로 걸을 수 있다는 자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들고 길을 걷는 것은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지팡이로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을 도울 때는 일방적으로 흰 지팡이를 잡아 끌면 시각장애인이 당황할 수 있으므로, 미리 말로 설명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안내인의 팔꿈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올해 '제38회 흰지팡이 날'을 맞이하여 전국단위의 기념식이 10월 17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약 3,000명의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노래자랑, 팔씨름, 젓가락 윷놀이 등 화합의 한마당이 이어질텐데요.

10월 한 달 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열릴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를 지지대로 재활과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박사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인데요.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정책을 연구 중인 서원선 박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서원선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입사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현재 개발원에서 4개 정도의 연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연구는 어떤 것인가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인식개선, 자살예방, 장애인수급자노동유인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시각장애인 직업 재활 연구는 전 연령층을 상대로 이루어지는데요,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이료, 안마 이외의 직종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연구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현재 국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노인, 청소년에 관련된 자살예방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연구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보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와 같은 문제 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 한 실질적인 개선책과 해결책을 파악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살예방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보고 싶은데요,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현재의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장애인은 자살의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장애인 자살예방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연구부터 진행했는데요, 작년에 1차 연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 자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해 2차 연구를 하면서 장애인 자살예방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습니다. 연구는 전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장애인과 대면해 자살을 시도한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대상자가 참여를 해주어야 하는데 무거운 주제이다 보니 대상자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렇군요, 장애인이 살기 좋고 편한 사회가 되려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고용주들이 장애인은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 있는 것이죠. 의무고용률이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들이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다채로운 직업의 영역에 뛰어 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장애인 채용 차별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 장애인이 고용문제를 겪을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제도적 장치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애 당사자 역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무, 맡은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애의 유무보다도 능력을 중요시 할테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진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개발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으니 컴퓨터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기도 하고 사회가 장애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면 외국의 긍정적인 사례처럼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만든 코끼리, 광화문에서 만나요!

2017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현장으로
나들이에 나선 시각장애 학생들이 만든 코끼리,
함께 만나보실까요?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는 2017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이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
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으로 열
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시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참여 부스도 열렸는데요.

특히 사단법인 우리들의 눈에서 주관한 상설전시인 광화문 코끼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 코끼리는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전국 맹학교 순회 아트 프로젝트인 '코끼리 만지기' 수업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예술가가 함께 작업한 코끼리 예술작품 전시인데요. 옛 우리의 속담 '장님 코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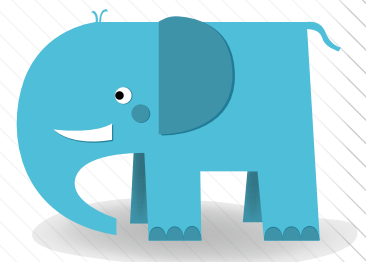


말하듯'에서 착안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실제 코끼리를 만져본 뒤 창의력을 발휘해 만든 작품으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자신이 만진 코끼리의 느낌을 모두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어떤 학생은 코끼리의 코와 다리를 길게 표현하기도 했고, 어떤 학생은 코끼리의 큰 몸집에 비중을 두어 초대형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관람한 관람객들은 코끼리 전시물을 직접 만지며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시 마지막 날에는 사전 접수로 이루어진 코끼리 아이싱 쿠키 만들기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감동받고 재밌다는 관객들이 많아 뜻깊은 전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음성정보 서비스와 현재 생활

박민혁(시각장애 1급_서울특별시 마포구)



여러분은 혹시 음성정보 서비스 즉 'ars'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아마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전화를 통해 원하는 정보 습득, 은행거래, 날씨정보 알아보기 물건 구입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칭하여 음성정보 서비스 또는 ars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 서비스의 사용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 앞에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위에서 예로 들었던 모든 서비스를 화면을 터치하는 동작만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 음성정보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웹 및 모바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아서 인터넷과 모바일 정보를 편리하게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음성정보서비스를 통해 경험한 에피소드 2가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신문과 책을 전화로 듣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다. 예로부터 점자도서관과 복지관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음성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일간지, 주간지를 비롯하여 생활정보, 복지 시책, 신간도서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 전달 역할은 물론 음성 동아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공유의 장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를 통해 듣고 싶은 일간지 신문과 스포츠 신문, 마음에 드는 신간도서와 필요한 복지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동아리 서비스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여 답을 얻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신문을 읽으며 당시 이슈가 되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 상대방의 대화에서도 제가 듣거나 생각한 정보를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선인터넷을 음성으로 즐기다!

핸드폰을 가진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모바일 메시지를 비롯하여 간편 결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지만 제가 중학생이었던 10여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 핸드폰 즉 피쳐폰을 사용하였던 것은 물론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자 정보, 도착한 문자메시지, 최근에 수·발신한 통화목록 정도만 음성으로 읽어줄 뿐 기본적인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던 중 솔깃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음성으로 들으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sk텔레콤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말까지 들으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는 없지만 음성정보로 변환하여 듣는다는 건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신문기사의 내용대로 접속 방법을 알아내서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정보를 비롯하여 증권, 정치 사회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항목을 즐겨찾기 형식으로 등록해 놓으면 다음에 접속할 때부터 최신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먼저 들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편리함 속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예매와 물건 구매 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은행 거래를 하려 하는데 어떤 버튼에 위치했는지 알 수 없다거나, 꼭 사용하고 싶은 통신회사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려는데 실행한 후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아무것도 읽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겪을 때마다 개발자와 운영업체들에게 장애인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는 만큼 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그 다음날이 되면 나아지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글을 맺으려 합니다.

브라질 시각장애인 청년, 전문 서퍼로 활동

최근 브라질 청년 데릭 라벨로(25)가 하와이 오아후섬에 있는 반자이 파이프라인 해변을 제패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릭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 선천성 녹내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아버지와 큰아버지 등 서퍼 가문에서 태어난 데릭은 두 살 때 아버지에게 엮으려 탈 수 있는 보디보드를 선물 받아 브라질 구아라파리 해변에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7살 때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서프보드로 서퍼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데릭은 “난 아버지와 함께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바다에 나가 서핑을 연습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핑 학교에도 다니며 코치에게 배우고 동료들과 열심히 연습했다”면서 “그렇지만 코치나 동료들 모두 내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핑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1개월 뒤 파도가 높기로 유명한 하와이의 반자이 파이프라인 해변을 제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서핑 상급자들에게도 어려운 곳이어서 주위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두 명의 전설적인 서퍼의 제자로 들어가 고급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했고 결국 반자이 파이프라인 해변에서 파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데릭은 수면에 손을 대 파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소리를 들어 파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를 예상한다고



말했으며, “만약 당신에게 꿈이 있다면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신께서 주신 뛰어난 감각이 있다. 열정과 인내를 갖고 그런 감각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데릭은 이제 타히티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도타기 명소들을 제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또한 취미로 스케이트보드나 스노보드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손가락 뜨개 가방으로 겨울을 준비해요!

지난 9월 9일과 9월 16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4층 회의실에서는 손가락 뜨개 가방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손가락 뜨개 기법은 핑거니팅이라고도 하는데요, 뜨개질 바늘 없이 손가락만을 이용해 엮어서 뜨개질을 하는 기법입니다. 시각장애인 6명과 비장애인 6명이 1:1로 짝을 이뤄 진행된 이번 클래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뜨개 가방을 하나씩 완성하였습니다. 원데이클래스에 참가한 시각장애인은 “뜨개질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늘 없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신기함을 느꼈고 만든 가방 역시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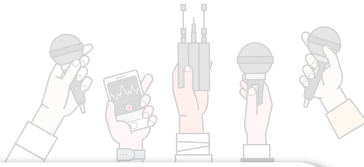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수락산 자락길 건강걷기대회 실시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18일 수락산 자락길에서 걷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노원구 장애인복지기금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시각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김성환 노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수락산 자락길 건강걷기대회에 참석한 시각장애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한시련, 장애인 정보이용 차별철폐 성명 발표 기자회견 가져

지난 9월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정문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의 주최로 장애인 정보이용 차별철폐 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에 제출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장애인 차별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지하였는데요. 본 기자회견에서 한시련 관계자는 “정보이용자가 모바일 환경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정보이용에 대한 차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조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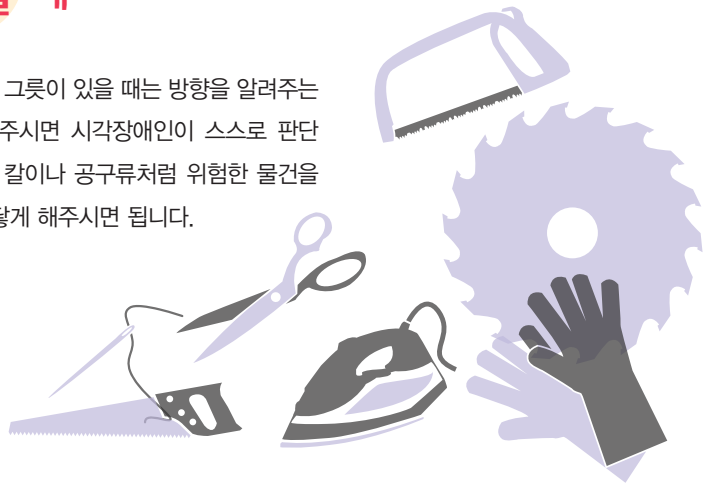
한시련, 첫 전국심화재활교육 실무자 과정 실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에서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동학산장호텔에서 2017년 전국심화재활교육 실무자과정을 개최했습니다. 본 교육은 장애인단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실무자들에게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무수행 능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한시련 전국지부와 지회 담당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재무회계의 이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이용에 대한 이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소개와 주요 이슈 등 시각장애와 관련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교육에 참가한 실무자들은 시각장애 단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

뜨거운 차나 뜨거운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을 때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손을 살짝 손잡이에 닿게 해주시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조심성 있게 다루게 됩니다. 또한 칼이나 공구류처럼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는 물건의 손잡이 쪽을 손에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7년 10월 207호

발행일 2017년 10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